

## 글로벌리스트들의 신세계 질서 확립과 그레이트 리셋 플랜, 음모론인가, 실제인가? (New World Order, Great Reset)

코로나 19 2년, 3년째, 백신 방역 패스, QR 코드, 신원 확인, 순식간에 나의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

먹고 사고파는 일을 하지 못한다. 특히 중국은 동계 올림픽, 철저히 인권 유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를 돕는 다른 짐승, 계13:15-18

15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과거에도 베리칩, RFID 칩,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강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접종, QR 코드, 백신 접종 받지 못하면  
완전히 왕따, 심지어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소수를 폄하하고 궁극적으로 고발 조치,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 초유의 사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사는 시대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정신을 차려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다수 교회, 목사들 여전히 감성팔이 설교, 번영 신학, 기복신학, 록음악, 경배와 찬양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이 와중에 7년 환난기는 없다, 휴거는 없다 내놓고 말하는 목사들

이런 자들 짧잠게 이야기해도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들은 400년 전의 칼빈 루터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등 비성경적인 재림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맹종  
루터는 심지어 계시록이 없었으면 했다. 칼빈주의자들, 네로가 적그리스도, 지금도 동일하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사실 나는 2022년에 시편과 잠언, 디모데전후서, 에베소서 등을 강해하려고 함

그런데 201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코비드 19 감염, 결국 인하대 병원 8일 입원

이 기간에 정신없이 지내면서 올해 목회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재림, 계시록, 세상 변화,  
성경)

코로나 19 통제 시스템, 계13장의 성취가 눈앞에 다가옴, 미국 포함 전 세계가 사회주의 좌경화 독재  
시스템 예고, 이러한 가운데 UN 어젠다 2030, 2050 등의 책들을 보게 됨(\*)

나는 가능한 한 음모론 등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음

대개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 센세이셔널하다. 사실 맞아도 그만 맞지 않아도 그만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가운데 신세계 질서 확립과 그레이트 리셋 플랜, 666, 짐승의 표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이것을 피해 도망가려면 왕의 군대, 신부 단장, 매일 모여 록음악, 다니엘  
21일 기도, 울면서 기도하고 식량 준비, 앞날 대비, 7년 환난기 통과, 휴거

이들도 어리석은 자들, 계시록 13장을 보라.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피해 예배드리는 것 불가능, 사거나  
파는 것 불가능, 그런데 어떻게 매일 모여 기도하며 신부 단장하고 극도의 지옥 같은 환난을 이기며  
휴거를 받는가? 이들 역시 천주교, 장로교 무천년주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제발 성경을 공부하기 바란다. 성경은 환난 전 휴거를 말한다. 환난 통과는 이단 교리이다.

환난 전 휴거인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지만 휴거가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뀐다.

즉 적그리스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와서 하려는 일들은 거의 다 구체적으로 시행될 단계에

이른다. 백신 패스를 보면서 짐승의 표를 유추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대처하며 살아야 한다. 알면 평안하다. 남을 구원할 수 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가 휴거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20여권의 책들을 구매하고 10여권의 책들을 아마존 킨들로 구매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대립의 전장이다.

마귀는 원래 루시퍼, 겔28, 사14, 우주 공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 어느 시점에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함. 목적: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은 신 분, 하나님 이상으로 되려는 야망

하나님의 계획: 이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려 주려 하심

이 일을 위해 우주 창조, 인간 창조(하나님의 형상)

마귀의 개입, 인간 타락,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멸하고 인간 구원 계획 확립, 실행, 여자의 씨 메시아, 인간 구원

결국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의 대립

1. 가인과 아벨, 1400년쯤 지나서 마귀의 계획 성사
2. 창6,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이브리드 건인 종족 생산,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인간의 유전자를 지닌 자들 사라짐  
경건한 셋의 후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No! 천주교의 창시자 어거스틴의 이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노아의 대홍수, 모두 멸절시키고 다시 시작함
3.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 11장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편에 서는 자들 등장, 대표 니므롯, 여기에서 바빌론 혼합 체제
4. 그 이후로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과 마귀의 편에 서는 자들의 갈등과 대립
5.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마귀의 시험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마귀의 모든 것을 섬멸함  
다만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아서 여전히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다.

#### 재림의 때의 특징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장악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계락을 실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 빌 게이츠, 소로스 등 이들의 역사 조직 등을 자세히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일들을 수행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이 이번의 방역 패스이다. 이들은 강제 백신 접종, 미접종자 탄압, 분명히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어젠다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인간 통제가 가능하려면 초고속 인터넷 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아마존 밀림에도 태양에너지 사용, 인터넷 가능하게, 초고속 연결

4차 산업 혁명, 인공 지능, 메타 버스, 결국 인간 컨트롤

대다수 시민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 바쁘게 지낸다,

그런데 세상에는 프로페셔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다. 이제는 문화를 통해 인간 정복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만 연구함

우리나라 586 좌익, 페미니스트 그룹들과 동일하다.

오랫동안 그람시의 진지전을 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좌익들이 세력 확장, 장악

이런 단체 중 하나가 바로 UN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 자기들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착각한 채 인간 구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계획, 실행한다.

자기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착각하고 15년 단위로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2015년, 2030 어젠다 2030,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구체적인 인간 컨트롤이 시작되었다.

매개체: 4차 산업 혁명, 인공 지능, 얼굴 인식

영화 임플란티드(\*)

나노 칩에 의해 뇌를 통제 당하며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SF 스릴러물

충격적인 소재로 2021년 국제 우수 영화제를 휩쓴 <임플란티드>가 드디어 오는 1월 27일 국내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영화 <임플란티드>는 나노 칩에 의해 뇌를 통제 당하며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SF 스릴러물.

영화 <임플란티드>는 주인공 새라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다이내믹 헬스 큐어'라는 제약회사의 실험 대상이 되기로 자원하며 시작한다. 이는 바로 개인 진단 모니터링을 위한 LEXX 나노 칩을 뇌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 나노 칩은 어떤 질병이 발생할 때 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점차 나노 칩은 그녀의 뇌까지 조종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새라는 나노 칩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살인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영화 <임플란티드>는 건강 진단을 위해 이식한 칩이 한 개인까지 삼켜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있을 직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소름이 돋는다. 이렇듯 파격적인 소재로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국제 우수 영화제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전 세계 22개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었다. 특히나 뉴욕과 파리를 오가는 로케이션 촬영과 나노 칩 LEXX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화면 전환은 영화의 볼거리와 퀄리티를 한층 더한다.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머리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인공 새라가 가운데 위치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녀 뒤에는 새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모니터들이 빼곡하다. 포스터에는 그녀의 뇌에 이식된 LEXX 나노 칩의 형태는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LEXX 나노 칩의 막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포스터 중앙에는 '컨트롤 할 것인가, 컨트롤 당할 것인가'라는 카피가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타이틀 <임플란티드>의 폰트 디자인은 마치 화면이 에러 난 듯한 느낌을 준다. 포스터 하단에는 그녀가 살고 있는 뉴욕 브루클린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듯 온통 붉은색이다.

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좋은 아침이에요, 새라'라는 나노 칩 LEXX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새라의 의료 정보의 기록만을 위한 이 나노 칩은 점점 새라의 정신에 파고들기 시작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던 새라가 나노 칩을 이식받고 빛을 잃게 되는 것을 예고한다. 곧 본색을 드러낸 나노 칩 LEXX는 그녀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새라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소용이 없다. 그녀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며 나노 칩에 완벽히 통제당하게 된다. 신선한 소재의 스토리를 속도감 있게 표현한 본편처럼 예고편 또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다이내믹하다. 충격적이고 강렬한 비주얼의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한 <임플란티드>는 1월 27일 개봉 예정이다.

[<임플란티드> 예고편 리뷰] 나노 칩에 의해 뇌가 통제당해버렸다

UN과 함께 또 다른 임의 단체가 세상을 컨트롤하려 한다.

그 단체의 이름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위키 백과: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이다. 독립적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주의 도시인 콜로니(Colony)에 위치한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서방선진 7개국(G7) 회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71년 1월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창설한 '유럽경영포럼(European Management Forum)'으로 출발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첫 회의에 400명의 유럽 경영인들이 참가하였다. 1973년부터 참석 대상을 전 세계로 확장하였고 1974년 1월부터 정치인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1976년 회원 기준을 '세계의 1000개 선도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198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1년부터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스위스 그라우빈덴주에 위치하는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세계경제포럼'의 사명은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각국의 사업을 연결하여 지역 사회의 산업 의제를 결정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정상, 장관, 국제기구 수장, 재계 및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분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바프(독일어: Klaus Schwab, 1938년 3월 30일 ~ )는 독일 태생의 스위스 경제학자이다.[1]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 1938년 독일 태생으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프리부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2년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학자이자 기업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헌신하며 국제 분쟁 해결에 노력해왔다. 1998년에는 부인 힐데 슈밥과 함께 전 세계 사회적 기업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슈밥 재단'을, 2004년에는 40세 미만 리더들의 글로벌 의사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영글로벌 리더 포럼'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1971년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한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로, 전 세계의 비즈니스·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그룹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국제·지역·산업 어젠다를 구축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그 어떤 정치적·국가적 이익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클라우스 슈밥의 리더십 하에 다양한 협력과 국제적 발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조정 및 화합을 이끌어왔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하여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또 그 해 포럼의 공식 도서였던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은 28개국에서 출간되어 1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 코비드 19: 위대한 리셋, Covid 19 The Great reset, 2020년, 2021년 한국어판

2030년 그레이트 리셋(\*) (\*), 구만복 형제 자료, 개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2권의 책들, UN 2030, 2050 등 내용 소개  
인간 컨트롤의 핵심, 준비해야 한다.

그레이트 리셋, 신세계질서 음모론이 아니다. 인간 컨트롤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등장  
환난 전 휴거, 그러나 그 전에 극심한 핍박  
알고(편안하다) 계몽하고(한두 명이라도 구원) 빠르게 믿다가 휴거받아야 한다. (\*)